

# 치위생(학)과 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교우관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천혜원<sup>1</sup>, 전미진<sup>2\*</sup>

<sup>1</sup>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sup>2</sup>광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 The Effects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and Peer Relations upon Academic Self-effica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Cheon Hye Won<sup>1</sup>, Mee-Jin Jun<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owon University

<sup>2</sup>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wangju Health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교우관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J지역의 3개 대학 28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교우관계( $r=.434$ ), 학업적 자기효능감( $r=.282$ )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전공에 만족할수록, 학업성적이 상위권일수록, 교수-학생, 교우관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결과 교수-학생, 교우관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에 관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우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생, 치위생(학)과, 융합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and peer relations. The subject were collected from 289 dental hygiene students J region, three colleges of between November 5, December 30, in 2018.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Faculty-student interaction was correlated with peer relations( $r=.434$ ) and had a positively correlation with academic self-efficacy( $r=.282$ ) with improved of major satisfaction and higher academic performance, a much more vigorous active faculty-student interaction and peer relations of level of academic self-efficacy. The results reveals to develop program co-relationship in order to improve academic self-efficacy.

**Key Words** : Faculty-Student Interaction, Peer Relations, Academic Self-efficacy, Dental hygiene students, Convergence

### 1. 서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익숙해졌던 수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갑작스런

자율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표면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 같아 보이나 심리적 독립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1].

특히, 대학생들은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

\*Corresponding Author : Mee-Jin Jun(jmejin@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16,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Revised October 28,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야 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 결정 등 중요한 과업들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2]. 뿐만 아니라 대학생 시기는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이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대인관계의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는 중요한 시기이다[3].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경험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불만족스럽고 비효과적인 대인관계는 정신질환의 발생을 야기할 수 있으며, 좌절감과 두려움이 생기고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나 존중감이 부족하게 되어 모든 일처리를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4]. 요즘은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특히, 치과위생사는 융합형 인재로 간호사의 역할에서와 같이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환자를 보살피고 돌봄의 주체로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5], 환자나 그들의 가족, 보건의력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태도나 감정을 관리해야 한다[6]. 또한 전문적인 능력을 필수로 갖추어야 하며, 치과의사와 함께 진료방법을 공유하며 과학적인 관점에서서 유연한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와 예방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생이 대학에 재학 중 습득하거나 향상되는 것은 특정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비롯하여 사회적 기술, 정서적 역량, 신체적 성장과 발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7].

특히, 교수-학생 상호작용이란 대학생이 대학을 다니면서 경험하는 교수와의 학문적, 사회적 교류 활동을 말한다[8]. 이것은 학업성취도, 학업에의 열정, 지적 성장, 학업 만족도 등의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9] 대학생의 성장과 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Owenser[10]는 학교라는 조직의 구성원인 학생들은 학교를 구성하는 여러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구성해 간다고 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적 맥락에서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은 대학생의 교육성과와 자기효능감이다.

자기효능감은 학업, 진로 등 여러 맥락에서 적용되는데, 그 중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학업성취를 매개하는 중요한 학습심리변인이다[11].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통해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 중 교수 및 친구와의 학업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그들의 학업성취는 물론 학업의 지속과 취업, 대학원 진학 등 졸업 후 성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학업적 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요인의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2,13]가 있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학업성취도도 높았으며[14]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경로분석 모형으로 제시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15]. 대학생은 일반적으로 성인으로 인식하기에 교우관계를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기에 간과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 단지 신입생에 제한하여 대학생의 대인관계 자체를 중요한 변수로 두어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형성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이 대학생활을 통해 겪게 되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우관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우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 둘째, 교수-학생상호작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셋째, 교우관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전북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을 편의추출하여 치위생(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구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적합한 표본수를 확인하기 위해 G\*Power Win\_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중간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 변수 11개 수준으로 산출하여 다중회귀 분석에 필요한 최종 연구대상자수는 178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300명을 임의표집하였다. 이중 무응답하거나 응답

에 불성실한 경우와 오류가 있는 11부의 자료를 제외한 총 289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 2. 연구도구

### 2.1 연구내용 및 도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총 5문항으로 학년, 학업성적,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2.2 교수-학생 상호작용 측정 도구

교수-학생상호작용은 대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교수와의 학문적, 사회적 교류 활동을 말한다[16]. 또한 수업과 관련된 활동과 수업 외 진로지도 및 학업에 대한 상담 및 기타 상담 등 교수와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조[17]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학생상호작용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는 0.952로 조사되었다.

### 2.3 교우관계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교우관계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Bukowski, Hoza와 Newcomb[18]가 개발하고 정[19]이 한국판으로 수정 보완한 것을 김[20]이 재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  $\alpha$ 는 0.946로 조사되었다.

### 2.4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Bandura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자기효능감에서 파생된 개념이며, 개인의 판단과 신념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김[21]등이 개발한 도구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한 2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란 개인의 어떤 수행상황에 임해서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가를 의미하는 과제난이도 선호 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은 Bandura에 의하면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효능기대를 의미하며, 인간의 행

동은 자기조절 체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보는 10 문항, 자신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이나 신념의 정도라고 보는 의미의 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Cronbach  $\alpha$ 는 0.827이며, 과제난이도 선호 Cronbach  $\alpha$ 는 0.818 자기조절효능감 Cronbach  $\alpha$ 는 0.827, 자신감 Cronbach  $\alpha$ 는 0.781로 조사되었다.

### 2.5 자료분석

자료의 수집기간은 2018년 11월 5일부터 2018년 12월 20일까지이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19.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인들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우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하위요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갖는 인간관계경험 즉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교우관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1학년이 66명(22.8%), 2학년이 98명(33.9%), 3학년이 95명(32.9%), 4학년이 30명(10.4%)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은 중위권이 192명(73.3%), 하위권이 49(18.7%), 상위권이 21명(8.0%)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대상자가 126명(43.6%)이며, 보통이 143명(49.5%)으로 불만족하는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하는 대상자가 155명(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 직업을 경제적으로 보장된 직업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33명(46.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

### 3.2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우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

연구대상자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우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 모든 변인들은 왜도는 절대값 2미만, 첨도는 7미만으로 나타나 표본의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변인에 대한 측정은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기술통계 결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3.76 \pm 0.545$ 이었고, 교우관계은  $3.73 \pm 0.435$ ,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08 \pm 0.360$ 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은 자기조절효능감이  $3.41 \pm 0.458$ 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자신감( $2.94 \pm 0.574$ ), 과제난이도 선호( $2.75 \pm 0.561$ )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Grade	1year	66	22.8
	2years	98	33.9
	3years	95	32.9
	4years	30	10.4
Academic performance	≥4.0	21	8.0
	3.0 ~ 3.9	192	73.3
	≤2.9	49	18.7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atisfies	126	43.6
	Moderate	143	49.5
	Dissatisfied	20	6.9
Major satisfaction	Satisfies	155	53.6
	Moderate	118	40.8
	Dissatisfied	16	5.5
Ideas on the occupation of dental hygienist	Life's work	74	25.6
	The economic job security	133	46.0
	Until marriage potential job	82	28.4
	Possible, I want to leave home dental hygienist	0	0
Total		289	100.0

**Table 2.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Characteristics	Min	Max	Mean±SD	Skewness	Kurtosis
Faculty-student interaction	2.00	5.00	3.76±.545	0.076	-0.180
Peer relations	2.75	4.95	3.73±.435	0.311	-0.090
Academic self-efficacy	2.00	4.20	3.08±.360	0.473	0.425
Subject difficulty preference	1.00	4.86	2.75±.561	0.018	0.497
Self control efficacy	2.40	4.70	3.41±.458	0.391	-0.346
Confident	1.50	5.00	2.94±.574	0.458	0.856

**3.3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우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우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교우관계( $r=.434$ )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r=.282$ )과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 $r=.274$ ), 자신감( $r=.184$ )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교우

관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r=.309$ )과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 $r=.400$ ), 자신감( $r=.209$ )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하위요인 중 자신감( $r=.718$ ), 자기조절효능감( $r=.698$ ), 과제난이도 선호( $r=.653$ )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Table 3. The relation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peer relations, academic self-efficacy**

	1	2	3	4	5	6
1. Faculty-student interaction	1					
2. Peer relations	.434**	1				
3. Academic self-efficacy	.282*	.309**	1			
4. Subject difficulty preference	.110	-.003	.635**	1		
5. Self control efficacy	.274**	.400**	.698**	.173**	1	
6. Confident	.184**	.209**	.718**	.215**	.221**	1

\*\* p<0.01

### 3.4.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 3.4.1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를 가변수 처리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5.166, p<0.001), 모형설명력은 17.8%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beta=0.139$ , p<0.05), 학업성적 하위권( $\beta=-0.336$ , p<0.001) 학업성적 중위권( $\beta=-0.225$ , p<0.01), 교수-학생 상호작용( $\beta=0.159$ , p<0.05)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만족할수록, 학업성적이 상위권일수록,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려운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과제난이도 선호는 학업성적이 상위권(중위권  $\beta=-0.269$ , 하위권  $\beta=-0.250$ , p<0.01)일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업과 관련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 효능감은 학업성적이 상위권일수록( $\beta=-0.243$ , p<0.01),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beta=0.173$ , p<0.01), 대학생활에 만족할수록( $\beta=0.150$ , p<0.05)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업에 대한 자신감은 학업성적이 상위권일수록( $\beta=-0.202$ , p<0.05), 전공에 만족할수록( $\beta=0.164$ , p<0.05),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beta=0.103$ , p<0.05)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Table 4. The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faculty-student interaction**

Division	Academic self-efficacy				Subject difficulty				Self control efficacy				Confident				VIF
	B	$\beta$	t	p	B	$\beta$	t	p	B	$\beta$	t	p	B	$\beta$	t	p	
(constant)	3.018		14.546	<.001	3.390		9.898	<.001	3.073		11.169	<.001	2.623		7.421	<.001	
Major satisfaction	.083	.139	1.911	.047	.075	.080	1.044	.297	.080	.040	.523	.601	.157	.164	2.111	.036	1.855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060	.101	1.452	.148	.107	.117	1.582	.115	.113	.150	2.071	.039	.049	.051	.692	.489	1.707
Academic performance(LJ vs HI)	-.308	-.336	-3.949	<.001	-.357	-.250	-2.778	.006	-.283	-.243	-2.740	.007	-.295	-.202	-2.222	.027	2.541
Academic performance(MI vs HI)	-.179	-.225	-2.667	.008	-.333	-.269	-3.008	.003	-.141	-.140	-1.591	.113	-.091	-.071	-.794	.428	2.496
Faculty-student interaction	.105	.159	2.611	.010	.043	.041	.641	.522	.146	.173	2.728	.007	.109	.103	1.591	.013	1.305
	R <sup>2</sup> =0.221 Adjusted R <sup>2</sup> =0.178, F=5.166***, DW:1.990				R <sup>2</sup> =0.127 Adjusted R <sup>2</sup> =0.080, F=2.659**, DW:2.004				R <sup>2</sup> =0.156 Adjusted R <sup>2</sup> =0.109, F=3.354***, DW:1.749				R <sup>2</sup> =0.115 Adjusted R <sup>2</sup> =0.066, F=2.364**, DW:2.107				

\*\* p<0.01 \*\*\* p<0.00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3.4.2 학업성적에 따른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학업성적별 집단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상위권 집단이 중·하위권 집단보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위권 집

단에서 표준화 계수를 이용한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3학년보다 1학년이( $\beta=0.698$ ), 2학년보다 1학년이( $\beta=0.616$ ), 전공에 만족할수록( $\beta=0.470$ )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beta=0.301$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Table 5. The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faculty-student interaction according to Academic performance

Division	Academic self-efficacy											
	High level(n=28)				Middle level(n=206)				Low level(n=55)			
	B	$\beta$	t	p	B	$\beta$	t	p	B	$\beta$	t	p
(Constant)	3.861		5.219	.000	2.628		10.963	.000	2.698		5.790	.000
Grade(3 vs 1)	-.570	-.698	-3.052	.009	.056	.075	.880	.380	-.010	-.015	-.064	.949
Grade(2 vs 1)	-.483	-.616	-2.464	.027	-.008	-.011	-.127	.899	.184	.299	1.248	.219
Major satisfaction	.294	-.470	1.853	.045	.085	-.137	1.543	.125	.026	.060	.308	.760
Faculty-student interaction	.193	.301	1.333	.024	.166	.247	3.127	.002	-.026	-.049	-.316	.754
p=0.010	$R^2=0.775$ Adjusted $R^2=0.567$ , F=3.720**, Durbin-Watson:2.424				$R^2=0.162$ Adjusted $R^2=0.105$ , F=2.851**, Durbin-Watson:1.814				$R^2=0.224$ Adjusted $R^2=-.022$ , F=0.911, Durbin-Watson:2.334			

\*\* p(0.0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3.4.3 전공만족도에 따른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전공만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공에 만족하는 집단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계수를 이용한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하위권보다 상위권에서( $\beta=0.533$ ), 중위권보다 상위권에서( $\beta=0.387$ ),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많이할수록( $\beta=0.141$ ) 대학생활에 만족할수록( $\beta=0.12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

Table 6. The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faculty-student interaction according to Major satisfaction

Division	Academic self-efficacy											
	Satisfaction(n=155)				Medium(n=118)				Unsatisfaction(n=16)			
	B	$\beta$	t	p	B	$\beta$	t	p	B	$\beta$	t	p
(Constant)	3.239		10.713	.000	2.456		7.461	.000	2.924		3.415	.042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091	.123	1.558	.021	.067	.090	.934	.353	.078	.188	.358	.744
Academic performance(LI vs HI)	-.536	-.533	-4.461	.000	-.088	-.115	-.745	.458	.420	.712	1.024	.381
Academic performance(MI vs HI)	-.328	-.387	-3.235	.002	-.081	-.120	-.791	.431	.709	1.202	2.152	.120
Faculty-student interaction	.108	.141	1.677	.046	.088	.146	1.319	.190	-.255	-.529	-.981	.399
	$R^2=0.221$ Adjusted $R^2=0.143$ , F=2.837**, Durbin-Watson:1.757				$R^2=0.154$ Adjusted $R^2=0.039$ , F=1.335, Durbin-Watson:2.178				$R^2=0.819$ Adjusted $R^2=0.095$ , F=1.132, Durbin-Watson:2.223			

\*\* p(0.0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I : High level, MI: Middle level, LI: Low level

### 3.5 교우관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 3.5.1. 교우관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우관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를 가변수 처리한 후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5.700$ ,  $p<0.001$ ), 모형설명력은 19.7%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beta=0.169$ ,  $p<0.05$ ), 학업성적 하위권( $\beta=-0.338$ ,  $p<0.001$ ) 학업성적 중위권( $\beta=-0.213$ ,  $p<0.05$ ), 교우관계( $\beta=0.215$ ,  $p<0.001$ )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만족할수록, 학업성적이 상위권일수록, 교우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7.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려운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과제난이도 선호는 학업성적이 상위권(중위권  $\beta=-0.274$ , 하위권  $\beta=-0.260$ ,  $p<0.01$ )일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업과 관련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효능감은 학업성적이 상위권일수록( $\beta=-0.278$ ,  $p<0.01$ ), 교우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beta=0.335$ ,  $p<0.001$ )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업에 대한 자신감은 학업성적이 상위권일수록( $\beta=-0.202$ ,  $p<0.05$ ), 전공에 만족할수록( $\beta=0.181$ ,  $p<0.05$ ), 교우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beta=0.162$ ,  $p<0.05$ )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7.

Table 7. The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Peer relations

Division	Academic self-efficacy				Subject difficulty				Self control efficacy				Confident				VF
	B	$\beta$	t	p	B	$\beta$	t	p	B	$\beta$	t	p	B	$\beta$	t	p	
(Constant)	2.810		12.890	<.001	3.926		10.821	<.001	2.429		8.658	<.001	2.308		6.189	<.001	
Major satisfaction	.101	.169	2.427	.016	.095	.102	1.369	.172	.048	.063	.891	.374	.173	.181	2.430	.016	1.738
Academic performance(LI vs HI)	-.310	-.338	-4.026	<.001	-.372	-.260	-2.903	.004	-.278	-.239	-2.808	.005	-.295	-.202	-2.241	.026	2.532
Academic performance(MI vs HI)	-.169	-.213	-2.553	.011	-.339	-.274	-3.073	.002	-.122	-.121	-1.435	.153	-.079	-.062	-.698	.486	2.501
Peer relations	.177	.215	3.635	<.001	-.114	-.089	-1.407	.160	.352	.335	5.609	<.001	.214	.162	2.563	.011	1.252
	$R^2=0.238$ Adjusted $R^2=0.197$ , $F=5.700^{***}$ , $DW=2.062$				$R^2=0.132$ Adjusted $R^2=0.085$ , $F=2.779^{**}$ , $DW=2.004$				$R^2=0.22$ Adjusted $R^2=0.179$ , $F=5.200^{**}$ , $DW=1.827$				$R^2=0.128$ Adjusted $R^2=0.080$ , $F=2.665^{*}$ , $DW=2.143$				

\*\* p<0.01 \*\*\* p<0.00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I : High level, MI: Middle level, LI: Low level

## 4. 고찰

본 연구에서 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 경험 중 특히, 교수-학생 상호작용 및 교우관계와의 상호작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전북지역에 위치한 3개 대학 치위생(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을 위해서 독립변인에는 연구변인과 통제변인을 포함하였다. 그 중 연구변인은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교우관계를 적용하였으며, 통제변인에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 전공만족도를 포함시켰다. 또한 종속변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하위요인에는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으로 구성하였다.

Table 2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우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3.76점이었고, 교

우관계는 3.73점이었으며 권[22]의 연구에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5점 만점 중 2.56점으로 보통에 가까운 점수였고, 교우관계는 5점 만점 중 3.52점으로, 본 연구에서 보다 전체적인 점수가 다소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에 있어서 치위생(학)과만의 특성을 지니는데 정원 100명 중 1-2명을 제외하고는 여자로 구성되었다. 1학년 때부터 조별학습과 임상실습시간이 주를 이루어 교수,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타 지역 학생들이 많아 어려울 때 서로 더 의지가 되기 때문이며 대학생활에서 교수와 교우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배[23]등의 연구에서는 교수-학생, 교우관계는 대학생의 학습참여와 학업성공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Astin[24] 연구에서는 교수-학생의 상호작용 수준의 정도가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얼마나 잘 적응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내용이라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과제난이도 선호는 2.75(0.01), 자신감은 2.94(0.45)로 나타났다. 유[25]의 연구에서는 과제난이도 선호는 3.46점, 자신감은 3.19점으로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신감은 본 연구에서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바 아직 고난도의 학습내용을 다루어 보지 않은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에서와 같이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교우관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상호작용이란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 관계를 형성한 대상자와 일정기간 동안 꾸준히 인지적, 심리적 으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대상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교육방법[26]으로, 멘토링의 학습방법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정[27]의 연구에서도 멘토링 학습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각 하위요인별 학습자기효능감, 수행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등 다섯 가지 구성요인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김[28]등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과 적응프로그램, 학업자신감, 전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며 원활한 대인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able 4에서와 같이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전공에 만족할수록 학업성적이 상위권일수록 교수-학생간의 상호작용을 많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상승하였다.

Wentzel[29]에 의하면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이 학습자들과 교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교사의 긍정적 기대와 가치를 내면화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수업참여도와 흥미도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신[30]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등학생은 교사에 대한 인식보다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요인에서 기인한 더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영향관계에서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과제난이도 선호는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자신의 의지로 과를 선택한 경우 높아졌으며,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연구[31]에서는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였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신감에서 더 낮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갖은 결과 어려운 학습내용을 선호하지 않으며 자신감 또한 낮아지며 결국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학업에 대한 자신감에서는 학업성적이 상위권이고, 전공에 만족하며,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Schunk[32]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은 충동이 강하고 쉽게 포기하며, 낮은 학업목표를 가지며 자신감이 없어 자기 비판적이며 결국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조절 효능감에서는 학업성적이 높고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많으며, 대학생활에 만족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33]는 의료종사자들의 경우, 자기조절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것은 인간관계에 정보인식 활용이 유의했으며, 자기조절이 인간관계와 연관이 되어 결국 전문 인력으로서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에서와 같이 학업성적에 따른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계에서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상위권 집단이 중하위권 집단보다 상호작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정[34-36]의 연구는 상보적 교수법으로 이 교수법은 일반적 경험을 이론적으로 확인하는 교수학습모형으로 교사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들끼리 서로 대화를 통해서 역할을 교체하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특히 학업성적에 있어서 상위집단에서 교사-학생간에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가 하위집단에서 보다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1학년이 2, 3학년에 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양[37]의 연구에서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과제 수행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므로 학제의 차이 보다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따른 차이라고 사료된다.

Table 6에서와 같이 전공에 만족하는 집단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공만족도는 일반적인 특성에서 보면 155명(53.6%)으로 절반이상이 만족하다는 결과였으며, 도[38]의 무용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 연구에서는 전공만족의 총점은 대학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못했다. 공학전공 신입생[39]들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공학흥미와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 송[40]의 연구인 전공만족도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활에 의미가 있다는 결과와 같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해 보면 전공에 대한 교과 과정이 만족스럽게 제공 되고 교수와 학생은 서로 신뢰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또한 향상되리라 사료된다. 김[41]의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의 평균평점 3.55점으로 보통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전공만족도는 관계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생활에서 교수-학생, 교우관계가 적절한 관계를 맺도록 관계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42].

따라서 치위생(학)과의 대학생활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able 7에서와 같이 교우관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전공에 만족하고, 학업성적이 상위권일수록, 교수와의 관계가 상호작용이 활발하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이는 원만한 교우관계가 학교생활의 만족을 가져오는 결과를 보였으며, 그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의 변수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43].

장[44]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교우관계는 대학생활적응인 특히 학업적 적응에 유의미하였고, 최[45] 등의 선후배 관계에 만족감을 느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다. 그러므로 학창시절 교우관계는 학생의 정서적, 인지적, 심리적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대학에서 경험하는 대인관계는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었고, 교수와의 활동과 상호작용이 대학생에게 학습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도움이 되며,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단지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교우관계 중 한 유형만을 연구하였지만, 본 연구는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연구하여 결과적으로 교수-학생 상호작용 보다는 교우관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지방에 위치한 지방사립대학과 전문대학 재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교우관계가 어떠한 요소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교우관계의 두변인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도 되는지에 대한 결과가 모호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대학생활 속에서 대학생들의 다양한 변인들에 따른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교우관계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진행되었으면 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생, 교우관계 상호작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첫째,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기술통계 결과 3.76점, 교우관계는 3.73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08점으로 나타나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수-학생, 교우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교우관계( $r=.282$ ), 그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 $r=.274$ ), 자신감( $r=.184$ )과 정적인 상관관계였고, 교우관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r=.309$ ), 그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 $r=.400$ ), 자신감( $r=.209$ )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전공만족도( $\beta=.139$ ,  $p>0.05$ ), 학업성적 하위권( $\beta=.336$ ,  $p<0.001$ ) 학업성적 중위권( $\beta=.225$ ,  $p<0.01$ ), 교수-학생 상호작용( $\beta=.159$ ,  $p<0.05$ )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우관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에서는 전공만족도( $\beta=.169$ ,  $p=0.05$ ), 학업성적 하위권( $\beta=.338$ ,  $p<0.001$ ) 학업성적 중위권( $\beta=.213$ ,  $p<0.05$ ), 교우관계( $\beta=.215$ ,  $p<0.001$ )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REFERENCES

- [1] S. H. Kim, J. W. Kim. (2003).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7(4), 1-20.
- [2] H. S. Lee. (2014).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task and adjustment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Doctor's thesis. University of Yonse, Seoul.
- [3] S. H. Shin. (2015). Effect of part-time employment experience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15(6), 1033-41.
- [4] J. N. Kim & H. W. Chen.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focus on Jellabuk-do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ood service management. *J Food Service Industry*, 9(3), 81-92.
- [5] Y. Kang. (2015). Personal knowledge factors on compassion competence in clinical nurses. *Jo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6(5), 15-22.
- [6] H. R. Nam & M. Y. Cho. (2017). Effects of empathy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on emotional labor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1(1), 37-45.
- [7] A. W. Astin & A. Antonio. (2012). *Assessment for excellence: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hoger education*.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 [8] R. D. Beckett, L. Sheppard, A. Rosene & C. Whitlock. (2016). Student and faculty perceptions of humor in the pharmacy classroom. *Currents in pharmacy teaching and learning*, 8(2), 226-234.
- [9] Y. J. Kim. (2014). A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rofessor-students interaction., class satisfaction, reading and learnibg outcomes of students. *Th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12(3), 1-22.
- [10] R. G. Owens & T. C. Valesky. (2014). Organizational behavior in education leadership and school reform. *The Allyn and Bacon Educational Leadership series*, Eleventh Edition.
- [11] A. Bandur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Pretrice-Hall, Inc.
- [12] J. S. Hwa & O. J. Kim. (2011). The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and self-control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adolescen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1(3), 159-179.
- [13] M. A. Chu & A. C. Park. (2006).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Adaptation to school. *The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15(2), 271-288.
- [14] S. J. Ho & T. S. Shin. (2006). The Analysis of Relation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Self-efficacy Perceieved Teacer expectancy AND home Environment. *The Korean Society for child education*, 15(1), 5-23.
- [15] B. J. Zimmerman, A. Bandura & M. Martinez-Pons. (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3), 663-676.
- [16] R. D. Beckett, L. Sheppard, A. Rosene & C. Whitlock. (2016). Student and faculty perceptions of humor in the pharmacy classroom. *Currents in pharmacy teaching and learning*, 8(2), 226-234.
- [17] N. H. Cho. (2008). *The effect of teacher-student on students' attitude in physical education class*. Unpublished manuscrip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Dankuk, Seoul.
- [18] W. M. Bukowski, B. Hoza & A. F. Newcomb. (1987). *Friends, popularity, and the "self" during adolescenc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ine, Department of psychology.
- [19] L. H. Jeong. (1994). *The children's perception of the quality of their best friendship*.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ookmyung Women's, Seoul.
- [20] K. Y. Kim. (2006).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well-Being with Family Relationship, Friendship, and school Adjustment of High shool and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busan, Seoul.
- [21] A. Y. Kim & I. Y. Park. (2001).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The kor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39(1), 95-123.

- [22] D. H. Kwan. (2017). *The effect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and peer relations upon academic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Doctor's thesis. University of SungKyunkwan, Seoul.
- [23] S. H. Bae & S. H. Han. (2015). The impact of out of class activities on active and collaborative learning and institutional commitment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3(2), 323-356.
- [24] A. W. Astin. (1993). What matters in clooeger? Four critical years. San Francisco: Jossey-Bass.
- Kuh. G & Hu, S.(2001) The effect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in the 1990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24(3), 309-332.
- [25] K. H. Lew. (2017). The Relationship amo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0), 462-470.
- [26] K. E. Kram. (1985). *Mentoring at Work: Developmental relationship in Organizational life*, Glenview, IL:Scott Foresman.
- [27] D. U. Jeong. (2018). *The Effect of Mentoring Activities on korean language Achieve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Doctor's thesis. Graduate schoo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28] J. Y. Kim, H. O. Kim & M. H. Lee. (2019).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academic self-efficacy: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Child Health Nurs Res*, 25(2), 205-213.
- [29] K. R. Wentzel. (2009). *Students'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s motivational contexts*. In K. R. Wentzel, & A. Wigfield(Eds), *Handbook of Motivation at School*. New York:Routledge, 301-322.
- [30] J. H. Shin. (2006). The Analysis of relation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self-efficacy, perceived teacher Expectancy, and Home environm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5(1), 5-23.
- [31] Y. M. Lee & J. R. Jeong. (2015). *The relationship with academic self-efficacy and test anxie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stitution education problem of Chonnam University, 38, 57-75.
- [32] D. H. Schunk & B. J. Zimmerman. (2008). *Motivating and self-regulated learning: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Routledge Taylor and Francis group.
- [33] H. J. Lee. (2013). *The effect of the emergency medical workers of self-control and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emergency medical service of university of Kangwon, Korea.
- [34] S. H. Jung. (2009). *The effects of reciprocal teaching and learning on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35] K. M. Yang. (2017). The Relationship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 of Digital Convergence*. 15(12), 445-453.
- [36] H. K. Cho & I. S. Jung. (2018).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ability,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freshman. *J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3), 25-32.
- [37] I. S. Jung. (2019). Effects of Nursing students' Peer touring on self-leadershi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satisfaction : A Pilot study. *J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7), 48-56.
- [38] J. N. Do. (2017).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faculty-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on their school life.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34(4), 69-82.
- [39] M. S. Kim. (2016). The sex difference in relationship model faculty-students interactions and higher-order learning, career commit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engineering Interests and school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54(1), 151-181.
- [40] Y. J. Song. (2013).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Dong A Busan, Korea.
- [41] Y. H. Kim. (2016).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an.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1), 104-113.
- [42] J. Y. Kim. (2014).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Sungshin Women, Seoul.

- [43] M. K. Jeon. (2013).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4), 119-129.
- [44] S. H. Jang, Y. H. Chun & S. S. Han. (2014). The effect of peer relationship and dysfunctional family on life adjustment university. *The Korea Contents Society*, 14(6), 539-548.
- [45] B. G. Choi & S. H. Jo. (2014). The analysis of change in college students' interaction with faculty and peer students and differences in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he Korea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52(3), 29-54.

전 미 진(Mee-Jin Jun)

[정회원]



- 2011년 8월 :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구강보건학 졸업(보건학박사)
- 2011 ~ 2016년 08월 : 전남과학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2016년 9월 ~ 현재 : 덴바이오 연구원, 광주보건대학교 겸임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 임상치과
- E-Mail : jmejin@hanmail.net

천 혜 원(Hye Won Cheon)

[정회원]



- 2010년 3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박사
- 2010년 3월 ~ 2012년 2월 : 전남과학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 구강보건, 임상치과
- E-Mail : hs5909@hanmail.net